

## 취미 있는 인생

**K** 국제신문

김미희 기자



2017년 12월 서울 예술의전당에서 열린 국립발레단의 호두까기인형 공연을 관람했다. 난생처음 느끼는 즐거움이었다.

“취미가 뭐예요?”(상대방)

“발레요.”(나)

“발레는 왜 배우세요?”(상대방)

“제가 살려고요.”(나)

내 대답을 들은 쓰악한 표정의 상대방 얼굴이 보인다. 진짜다. 나는 살기 위해서 2016년 겨울 발레를 시작했다. 2012년 입사한 이후 내 삶은 운동과는 거리가 멀었다. 취재용 노트북을 백팩에 넣고 종일 취재 현장을 누비다 보면 물먹은 숨처럼 몸이 축 처졌다. 뻣뻣한 목과 어깨 통증 때문에 “아프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다. 한의원에서 침도 맞아보고 정형외과에서 물리치료도 받아봤지만 효과는

없었다. 마사지의 시원함도 그때뿐이었다. 근본적인 치료가 시급했다.

그러던 중 뜬금없이 대형마트에서 발레와 만났다. 당시 출입처와 도보 1분 거리에 A대형마트가 있었다. 쇼핑할 겸 들른 대형마트에서 문화센터 회원 모집 전단을 우연히 발견했다. ‘체형교정 키트리 발레 (성인/자녀동반 불가) 3개월 4만원’. 이 광고문구가 눈에 들어왔다. ‘발레=비싼 취미’라는 선입견이 한 방에 무너졌다. 체형교정에 발레가 좋다면 누군가의 말이 떠올랐다. 안내문에는 ‘아름다운 보디라인을 만들어주며, 발레 동작을 통해 일자 다리를 만드는 다리교정 효과

도 있습니다’ 라고 영험한(?) 효과까지 친절하게 적혀 있었다. 일주일에 한 번 50분 수업이라 시간적인 부담도 없었다. 게다가 착한 가격까지. 우물쭈물 망설일 필요가 없었다. 단번에 등록을 마쳤다.

이 글은 발레 간증기이자 방랑기다. 대형마트와 백화점 문화센터를 떠돌며 발레를 배웠다. 보통 수업은 3개월 단위로 진행된다. 수업 스타일이 나랑 맞지 않으면 과감하게 끊고 다른 곳을 탐색했다. 이리저리 옮겨 다니는 기질 덕분에 다양한 취미 발레인도 만났다. 고단한 일상을 잊고 발레 동작에 집중하는 동안 그들의 표정은 행복했다. 나도 그랬다. 긴장의 연속인 업무에서 잠시 벗어나 오로지 내 몸에 집중하는 시간이 좋았다. 일상복을 벗고 발레복으로 갈아입으면 고갈된 에너지가 재충전됐다.

### 어깨 힘 빼기의 기술

대망의 첫 수업 날. 인터넷 검색으로 주문한 레오타드(수영복처럼 생긴 발레복)와 스커트를 입고 선생님을 기다렸다. “어머, 미희 씨. 발레 처음 배우시는데 복장 잘 갖춰 입으셨네요.” 선생님이 말했다. “아하하~ 그런가요.” 어깨가 으쓱했

예술의전당 로비에 걸린 호두까기인형 현수막



다. ‘히히. 운동은 장비 빨 아닌가요.’ 마음은 발레리나였지만, 나무토막 같은 몸은 곧 제 실력을 드러냈다. 복장과 실력은 반비례했다. “어깨는 내리고 머리 정수리 끝을 위에서 누가 잡아당긴다고 생각하시고 길게 위로 쪽~ 뽑아내세요”라는 선생님의 말씀이 귓가에 들렸다. 하지만 몸과 동작은 따로 놀았다. 어깨엔 잔뜩 힘이 들어갔고 몸의 중심을 잡기도 어려워 비틀거리기 일쑤였다. 무릎을 굽히는 빨리에 동작에서는 ‘뚜두둑’ 관절 소리가 났다. 수업마다 “미희 씨, 어깨에 힘 좀 빼세요. 제발”이라는 선생님의 지적을 들었다. 평소 의식하지 못했던 내 몸의 잘못된 습관을 지적받으니 정신이 번쩍 들었다. 외계어 같은 발레 용어에 머릿속은 혼란스러웠고, 평소 쓰지 않던 근육을 사용하다 보니 첫날 수업은 땀범벅이었다. 하지만 묘하게 상쾌한 기분마저 들었다.

카피라이터 김하나 씨가 쓴 ‘힘 빼기의 기술’이라는 책에 이런 구절이 나온다. <힘을 빼는 건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다. 줄 힘이 처음부터 없으면 모를까, 힘을 줄 수 있는데 그 힘을 빼는 건 말이다. 친구 하나는 “병원 가서 엉덩이에 주사 맞을 때 말야, 간호사가 ‘엉덩이 힘 빼세요’ 하면 엉덩이에 힘을 빼야 한다는 건

장갑 때문에 더 힘이 들어가버린다구”라고 말했다. 하여간 힘 빼기의 기술은 미묘한 고급 기술이다.> 저 문장을 읽으면서 고개가 절로 끄덕여졌다.

30년 넘게 습관처럼 뻐 경직된 자세를 하루아침에 바꿀 수는 없었다. 어깨에 힘을 빼는 연습에만 몇 달이 걸렸다. 근무 시간 틈틈이 어깨를 위로 들어 올렸다 아래로 툭 떨어뜨리는 연습을 했다. 어깨 힘 빼기 기술의 연마였다. 잔뜩 움츠린 목도 좌우로 스트레칭하며 이완시켰다. 어깨에 힘을 빼니 러시아 병정처럼 굳은 몸동작이 조금씩 유연해졌다. 발레 용어도 서서히 귀에 들어오면서 선생님의 말대로 몸이 움직였다. “세상에서 내가 제일 예쁘다는 표정으로 거울을 보세요. 시선은 바닥 말고 항상 정면을 응시하세요”라는 선생님의 지도에 맞춰 딱딱하게 굳었던 표정이 풀리고 미소가 절로 지어졌다. 취재도 마찬가지로였다. 몸과 마음에 힘을 빼고 취재원에게 다가가니 취재도 술술 잘 풀리는 느낌이었다. 삶에 자신감이 생겼다. 서서히 발레에 재미가 붙기 시작했다.

같은 시간, 같은 공간에서 땀 흘리는 수강생끼리 끈끈한 전우애마저 생겼다.

자연스레 수강생과 대화할 기회가 생겼다. 어느 날 수업이 끝난 뒤 수강생 티타임에서 저마다의 '발레 간증'이 이어졌다. 20대 초등학교 교사, 30대 사무직 여성, 대학 시절 발레를 전공한 40대 주부, 50대 미용실 원장님 등 직업군도 다양했다. 대부분 나 홀로 수강생이었다. 이름도 나이도 몰랐다. 단지 발레를 배운다는 공통점으로 하나로 모인 집단이었다. 한 수강생이 “요가, 필라테스 같은 운동은 진즉에 섭렵했다. 재미없어서 다 그만뒀다. 하지만 발레는 할수록 재밌다”고 포

예술의전당 로비에 전시된 발레용품. 국립발레단에서 만든 예코백, 텀블러, 티셔츠 등을 판매했다.



문을 열자 간증이 봇물 터졌다. 50대 주부는 “애들 뒤통지다꺼리하느라 내가 뭘 좋아하느라 몰랐는데 발레를 배우고 나서 부터 세상이 달라 보인다. 우울증도 좋아졌다”고 울먹였다. 내 차례가 됐다. “저는 몸과 마음이 건강해졌습니다. 병원에 다녀봐도 낫지 않던 목과 어깨 통증이 사라졌어요. 회사 생활에 대한 매너리즘에 빠졌었는데 일이 다시 재밌어졌어요. 발레하려고 출근하는 기분이예요.” A대형마트 문화센터의 발레 수업은 1년 넘게 수강했다.

### 발레 수업은 복불복

회사 인사이동으로 인해 출입처가 바뀌면서 이번엔 집과 가까운 B백화점 문화센터의 발레 수업으로 눈을 돌렸다. 때마침 KBS2TV에서 여자 연예인들이 발레를 배우는 '발레교습소 백조클럽'이라는 예능 프로그램을 방영하면서 성인 발레의 대중적인 인기가 치솟았다. 문화센터 관계자의 말을 빌리면 평상시 10여명 안팎이었던 수강생은 20명 넘게 몰렸다. 방송을 보고 발레 입문에 용기를 낸 중년 여성이 대다수였다. 통상 발레 수업을 할 땐 바를 잡고 한다. 하지만 수강생을 모두 수용하기엔 벽에 설치된 바가 턱



기자의 발레 가방에는 레오타드, 반바지, 타이즈, 천슈즈가 들어 있다.

없이 부족했다. 결국 두 명씩 짝을 지어 서로 손을 맞잡고 동작을 할 수밖에 없었다. 교실의 인구 밀도가 너무 높아 서로 부딪치지 않게 조심스럽게 손발을 뻗을 정도였다.

대형마트 문화센터 수업이 소규모 그룹 과외였다면 백화점 문화센터 수업은 대형학원 강의였다. 수업 선택에 개인 차이가 있으니 본인 성향과 맞는 수업을 고르는 게 중요하다. 탈의실 같은 시설은 백화점이 더 나았지만 수강 인원이 너무 많아 만족도가 떨어졌다. 선생님과도 궁합도 중요하다. 외국 유명발레단 무용수 출

신이라는 선생님의 스펙에 혹했다. 그런데 막상 수업에 가보니 기대와 달라 실망했다. 나는 수강생과 정서적인 교류를 하면서 수업을 진행하는 선생님을 원했지만, 정해진 시간에 진도만 나가는 딱딱한 분위기에 숨이 막혔다. 숙제하는 기분으로 남은 수강 기간을 꾸역꾸역 채웠다. 3개월 만에 그만뒀다.

어차피 수업은 복불복이다. 문화센터 강의는 소위 강사 스펙만으로 수업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수업이 자신과 잘 맞지 않는다면 쇼핑하듯 다른 수업을 찾아보자. 시행착오를 거치다 보면

자신과 맞는 수업을 찾을 확률이 높아진다. 성인발레가 대중화되면서 대형마트와 백화점 문화센터에서 관련 강의 수가 늘어나는 추세다. 동네 발레학원에 서도 성인발레반을 따로 운영할 정도다. 현재는 C백화점 문화센터와 지역 문화회관에서 만족스럽게 발레 수업을 듣고 있다.

### 취미발레 만 2년 효과는

취미발레 만 2년의 성과는 이렇다. 발레를 시작한 뒤 삶의 의욕이 생겼다. 과거 휴일에는 무조건 집에서 '시체놀이'를 즐기던 내가 몸을 쓰는 즐거움을 깨달았다. 가만히 집에 앉아 있는 게 진정한 휴식이 아니었다. 땀을 흠뻑 흘리고 난 뒤 생기가 충전되는 맛을 알게 된 것이다.

난생처음 발레 공연을 봤다. 국립발레단의 '호두까기 인형'과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국립 아이스발레단의 '백조의 호수'를 관람했다. 발레를 배우고 나니 무용수가 어떤 동작을 하는지 눈에 들어왔다. 남들은 모르는 소소한 즐거움이였다.

활동 반경이 넓어졌다. 나 홀로 원정

발레를 다녀오기도 했다. 2017년 여름 열린 수원발레축제의 발레체험교실에 다녀왔다. 수원발레축제는 국내 무용계 최초로 만든 협동조합인 '발레STP(Sharing Talent Program)협동조합' 주최로 2015년부터 매년 열리는 축제다.

와이즈발레단의 홍성욱 안무가가 성인 취미발레생을 대상으로 무료 강습을 한다는 소식을 듣고 부산~수원 간 당일 왕복 기차표를 끊었다. 기분 좋은 설렘을 안고서, 경기도 문화의전당 내 경기도립무용단 연습실에서 90분간 '포인(발끝을 모은다)'과 '플렉스(발끝을 몸 쪽으로 당긴다)' 같은 발레 기본동작을 다시 배웠다. 20대 대학생부터 50대 주부까지 20여 명이 모였다. 처음 발레는 배운다는 한 주부는 "아이를 맡길 데가 없어 같이 왔다"면서 유치원생 자녀와 동행했다. 이 시간만은 모두 발레리나였다. 나이와 사는 곳은 달라도 발레를 배우겠다는 의지는 같았다. 발끝에 힘을 줬다가 다시 발끝을 몸 쪽으로 당기는 것처럼 인생도 포인과 플렉스의 연속이 아닐까.

만성통증이었던 어깨결림은 꽤 괜찮아졌다. 몸이 찌뿌둥할 때쯤이면 '발레하러 가야겠다'는 생각이 절로 든다. 처음에는



현재 기자가 수강 중인 지역 문화회관의 발레 수업 모습. 수강생들이 발레 동작을 연습하고 있다. 사진촬영 협조를 구했더니 다들 흔쾌히 허락해줬다.

쑥스러워서 발레를 배운다는 사실을 주위 사람들에게 비밀로 했다. 요가나 필라테스를 배운다고 거짓말로 둘러댔다. 이제는 열렬한 발레 전도사가 됐다. 나의 전도로 발레를 배우기 시작한 회사 동료도 생겼다.

발레는 삶의 스트레스나 고통에서 잠시 벗어나는 대피 방법이다. 기사를 낙종하거나 취재가 마음대로 풀리지 않을 때 클래식 음악에 맞춰 같은 동작을 반복하다 보면 마음이 한결 정리됐다. 조금증

을 버리고 '까짓것 내일 다시 해보면 되겠지'라는 긍정적인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됐다. 오늘도 가방에 발레용품을 넣고 '열발(열심히 발레)' 하러 나선다. 📌